

## 경향신문

# [정동칼럼]미국 급변사태 계획이 필요할지도

이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싱크탱크 미래지 원장

입력 : 2016.03.10 21:12:30 | 수정 : 2016.03.10 21:16:03

세계제국이라고도 칭하는 미국이 파열되는 날은 과연 올 것인가? 온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인가? 아마도 공상과학 소설의 먼 미래에 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가 순식간에 일어났듯이, 중동의 혼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듯이 미국의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지도 모른다. 쌓이고 있는 징후가 언제 변곡점을 넘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지금의 중국이 파열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경제적 위협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제국 미국이 파열한다면 전 세계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와 같은 좁은 시각에서만 미국을 보지만 정작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더 중요한 미국은 큰 구조적인 흐름 속에 있다.

3월5일 영국의 '가디언'지에 미국 정치의 흐름과 관련한 매우 통찰력 있는 분석기사가 하나 실렸다.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 중 하나인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선거전략으로 지금 미국 남부 백인들의 지지를 얻는지 역사적으로 고찰한 분석기사다.

기사의 내용은 1964년 대선 이후 미국 공화당이 남부 백인들을 어떻게 선거에 정교하게 끌어들이며 남부 백인의 정당성이 되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흑인 노예 해방을 주도한 링컨의 공화당이 오히려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대단히 인종주의적인 색깔로 변모해 온 역사를 추적한 것인데, 그 역사의 뒤에는 옛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남부 백인들을 공화당으로 끌어오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획득해 온 닉슨과 레이건의 선거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꽤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이 기사가 통찰력이 있는 이유는 남부 및 중하층 백인들이 기존의 주류 공화당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배경과 그들을 트럼프가 낚시질하는 전략에 착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부 및 중하층 백인들이 그동안 공화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공화당 주류 1%만 배부르고 오히려 자기들은 점점 궁핍해지는 하층민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했는데, 이 지점을 트럼프가 파고들고 있다.

